

‘한정판’ 열풍 ... 삼동이 달력 10배 폭등

모 방송국 유아프로그램인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광팬인 주부 김모(36)씨는 최근 ‘삼동이 달력’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다. 중고장터 사이트를 찾아 뒤져보지만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 김씨는 값은 정사가의 몇 배라도 상관없이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사원 양모(30)씨는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생각으로 ‘스타벅스 럭키백’ 한정판을 구하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줄을 선 결과, 겨우 1박스를 득템할 수 있었다. 4만9000원짜리 선물세트 안에는 청양 머그 1개, 스테인리스 스틸 텀블러 1개, 무료 음료권 3장 등이 들어 있었다.

최근 ‘한정판’ 상품·기념품들이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 인기를 얻으면서, 중고시장 등을 중심으로 해당 물건의 몸값도 치솟고 있다. 하지만 구하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갖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 하지만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유통업계의 타계책이라고는 하지만 소비자를 힘들게 하고 제품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18일 온라인쇼핑사이트 옥션에 따르면 현재 옥션 모바일 중고장터에는 모두 15부의 개인 소장 삼동이달력이 올라와있다. 입찰경쟁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이 곳에서는 대부분의 삼동이달력이 3만5000원에서 5만5000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정가 5500원과 비교하면, 희소성 때문에 값이 6~10배까지 뛴 것이다.

지난달 23일 밤 9시 첫 판매가 시작되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24일 오후 1시30분께 10만부가 완판됐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정해진 판매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높은 가격에 사려고 해도 못살 정도로 여전히 인기가 뜨거운 제품이다.

지난 15일 전국 매장에서 선보인 스타벅스 한정판 선물세트 ‘럭키백’도 최근 핫한 제품이다. 럭키백 1만5000개는 개장 3시간만인 오전 10시에 매진됐다. 이날 전국 670여개 스타벅스 매장 앞에는 럭키백을 구하려고 손님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이 럭키백의 인기 역시 그대로 중고 거래 사이트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한 중고거래 온라인 카페에는 스타벅스 럭키백을 팔거나 사겠다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판매자 측이 제시하는 가격은 7만~8만원선으로, 정가(4만9000원)의 43~63%에 이르는 ‘희소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한정판들이 인기를 얻는 것은 “최근 대중들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 레어템

스타벅스 럭키백 등 인기 폭발
희소성에 중고장터 값 치솟아
“제품 신뢰도 하락” 부작용 우려



스타벅스 럭키백

(희소상품)을 얻게된 방법과 사연 등을 해당 제품의 사진과 함께 올리고, 반응을 즐기며 다른 사람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자체에서 큰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행복을 위해서라면 정가의 몇 배라도 기꺼이 ‘작은 사치’를 누린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맥도날드는 지난해 11월말 헬로키티 한정판 인형을 내놔는데, 6가지 종류의 인형이 모두 들어있는 ‘스페셜 컬렉션’이 출시 하루 만에 동이 났다.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1인당 구매 수량을 2개로 제한했지만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 밖에도 코카콜라는 지난해 겨울 한정판으로 캔 오프너 라벨 뒤에 ‘WIN’이라는 문구가 나온 소비자에게 코카콜라의 마스코트인 ‘미니 스포츠 플라머’ 인형 3종 세트’를 3만 세트 한정해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인형은 판매상품이 아닌 증정품임에도



삼동이 달력

인터넷 사이트에서 1만8000원에서 2만5000원에 거래되는 상품으로 바꿨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런 한정판 마케팅이 장기적으로는 ‘하니버터칩’ 처럼 부작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매출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소비자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한정판이라는 게 정말 한정판인지 모르겠다”며 “소비자들에게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너도나도 한정판이라고 마케팅을 하면 소비자들의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유가급락 이어 스위스발 악재 외국인 매도세 이어져 정부정책 테마주 투자 바람직

위태롭게 1900선을 지켜오던 코스피는 주후반 스위스발 돌발 악재로 인하여 추락하고 말았다. 지난주 대비 1.9% 하락한 1888.13포인트로 마감했다.

스위스 중앙은행(SNB)은 1유로당 1.20스위스프랑인 최저환율제를 3년 4개월 만에 폐지했다.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로 스위스프랑 강세가 심화되자 SNB도 환율 방어를 포기한 것이다.

이로인해 스위스프랑 폭등과 유로화 약세를 초래했고 월·달러 환율은 1070원대로 떨어지는 등 국내 주식시장의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다.

2011년 유로존 경제위기가 닥쳤을 당시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스위스프랑이 몰리면서 스위스프랑의 가치가 폭등했고 환율방어를 위해 최저환율제를 도입했다. SNB측은 “최저환율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시행됐고 이 방법으로 스위스 경제는 보호 받았다. 최근 통화정책의 다변화로 유로화는 미국 달러화에 비해 가치가 떨어졌다. 스위스프랑 역시 미 달러화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 아래서 SNB는 최저환율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중앙은행(ECB)가 5년여 만에 첫 디플레이에 빠진 유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책으로 이르면 오는 22일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양적완화(QE)정책을 채택할 것이라 관측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유가급락에 이어 그리스 총선, 스위스 통화정책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졌고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4분기 실적 우려감까지 가세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고 있다. 외국인 매도세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에도 ECB(유럽중앙은행)통화정책회의, 그리스 총선 등을 앞두고 있고, 20일 발표되는 중국의 4분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투자자들이 매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 벤트가 끝날 때까지는 광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코스피지수가 큰폭의 반등이 없이 저점을 깨고 추가 하락한다면 기간조정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지수 PBR(주가순자산비율) 0.9배 수준에 근접한 상황에서 대외변수에 대한 낮은 민감도와 개별 모멘텀 보유로 성장성이 확보된 종목군에 대한 매리트가 확대되고, 배당 활성화정책으로 인해 향후 3년내에 배당성향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고배당관련주, 신성장 산업 및 창조경제 지원사업 활성화 등 정부정책 관련 테마 종목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는 바람직해졌다.



김경신
<NH투자증권
수원지점 부장>

주택담보대출 금리 3%대 무너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3% 금리선이 마침내 무너졌다. 고객들은 2%대의 저렴한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더욱 싼 값에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보이는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3년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외환은행의 고정금리대출 최저금리는 지난 6일까지 연 3%를 넘었으나, 7일 2.98%로 떨어진 후 매일 하락세를 이어가 15일에는 2.85%까지 내려앉았다.

최고 금리마저 연 3.15%에 지나지 않아 많은 고객들이 연 2% 후반대 대출금리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년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고정금리대출의 최저금리 또한 3%선이 무너져 2.98%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2010년 5%에 달했으나 2012년 4.63%, 2013년 3.86%로 내려간 데 이어 지난해 11월 3.3%로 하락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제 많은 고객들이 2%대 후반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대출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의 고정금리대출 금리도 지난 10일 3%선이 무너져 2.97%로 내려왔는데 이어 15일에는 2.92%까지 떨어졌다.

우리은행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의 최저금리도 모두 3% 밑 아래로 내려왔다. 고정금리대출 금리는 2.91%, 변동금리대출은 2.9%까지 주저앉았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변동금리대출 금리는 아직 3.0%지만 붕괴가 멀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 후반까지 떨어진 것은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 때문이다. 통상 고정금리대출의 금리는 국제 금리에 연동해 움직인다. 변동금리대출은 시장금리와 함께 움직이는 코픽스를 반영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락은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외환·하나·우리은행 등 2%대 현실화 가계부채 늘어 경제 시한폭탄 될 수도

를 감안하면 우려할만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년간 은행 대출을 통해 늘어난 가계 빚은 37조원에 달해 역대 최고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석달 동안 늘어난 가계 대출이 무려 20조원을 넘어 가계대출 급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리가 2.8%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억원을 빌린 사람의 이자 부담은 월 23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더구나, 지난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은 주택 구매와 상관없는 생활비나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등을 목적으로 한 대출이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대출금리가 더 떨어지면 가계부채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향후 금리가 올라가면 늘어난 가계부채가 월리금 상환부담으로 돌아와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인 소비 위축을 더 심화시킨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홍보지 및 판촉물

●전단지

●현수막

●상패

●전단지

●각종 인쇄물

●현수막

●각종 인쇄물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